

또 현산 ... 광주 공사 중 아파트 붕괴 6명 연락두절

〈현대산업개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
39층짜리 건물 외벽 무너져
철근·콘크리트 부실시공 의혹
인근 주민 1000여 명 긴급 대피
학동 붕괴사고 7개월 만에
현대산업개발 안전관리 불신 증폭

신축 공사중인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39층짜리 아파트(201동) 건물 일부가 붕괴됐다. 〈관련기사 6면〉

붕괴 건물 옆 부분에 부착해 설치한 높이 140m의 타워크레인이 20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여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거나 건물의 추가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 일대 원룸·오피스텔 500여 세대에 거주하는 주민 1000여 명에 대한 긴급 대피 명령도 내려진 상태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발생 7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아파트 건설 시공사가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점에서 대기업의 안전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건물 상부가 아닌 중간 부위에서 붕괴가 시작된 점을 들어, 콘크리트나 철근 시공의 하자로 인한 전형적인 부실 시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사 현장 일대 주민들의 소음·낙하 잔해 민원 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할 지자체의 대응 능력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1일 오후 3시46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날 사고가 나면서 현장 내 컨테이너에 있던 근로자들 4명이 갇혔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며, 이중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현장 관계자들을 통해 이날 24층과 31층 작업 일정에 포함된 작업자 6명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현장 수색 등을 진행중이다.

조흥의 서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파트 상층부 38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가 진행되면서 34층부터 23층까지 붕괴된 상황"이라며 "건물 내 작업자들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9층에서 38층으로 타설작업 중, 24층에서부터 붕괴가 시작됐다는 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오후 건물 외벽과 바닥층 등이 무너져 내린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관. 폭격을 맞은 듯 34~23층 외벽이 철골 구조를 드러냈다. 건물 옆에 설치된 14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기울어져 넘어질 듯 위태로워 보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날 사고로 콘크리트 벽체가 무너져 내리면서 일대 상가와 원룸 단지 등이 정전되고, 현장 주변의 주차 차량 10여대가 파손됐다.

사고 발생 아파트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23-26번지 일대에 현대산업개발이 지하 4층·지상 22-

39층 규모의 5개동 아파트·오피스텔(316세대·연면적 7만8293㎡) 규모로 건립중이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5월 착공, 오는 2022년 11월 해당 아파트 단지를 준공할 계획을 관할 자치단체에 보고한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바로 옆 부지인 화정동 23-27번지 일대에도 같은 규모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건설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타, 땅 일부 팔았다

600억대 광주공장 주차장 부지
합평 이전 앞두고 갑자기 매각

금호타이어가 최근 광주공장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600억원대 부지를 부동산개발업체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광주공장의 빗그린산단 이전과 동시에 현 부지 매각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서둘러 인근 부지를 매각한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주변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30일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광주공장 인근 소유 부지를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에스앤디에 매각했다. 이후 당일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 지위를 얻어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타이어가 매각한 부지는 광산구 소촌동 541(5732㎡)을 비롯한 토지 11개 필지와 건물 1개 등 총 2만1182㎡(6408평) 규모다.

금호타이어는 해당 부지를 총 600억원에 일괄 매각했다. 평당(3.3㎡) 약 940만원 수준이다.

이번에 매매가 이뤄진 토지는 대운동장과 주차장, 테니스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직원들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돼 왔다.

특히 '일반공용지역'으로 분류된 현 광주공장 부지와 달리 매각이 이뤄진 땅은 전체의 70% 상당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주택단지 등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도는 250% 이하로, 건폐율 한도는 50%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당 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할 경우 최대 300세대 안팎의 아파트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2면으로 계속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광주FC "0에서 다시 시작한다" ▶18면

행복해지려면 건축과 도시를 바꿔라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명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로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삼 인삼 사보닌 A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시험 실험 결과(49 후 사용 결과)(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간: 2021년 03월 03일~2021년 05월 03일